

# 人物中心으로 본 朴氏傳의 構造와 그 意味

鄭 相 珍\*

## 차 례

- |                     |                    |
|---------------------|--------------------|
| I. 서 론              | IV. 胡軍退治과정에서의 人物들의 |
| II. 朴氏의 身分과 時代的 意味  | 행위와 그 意味           |
| III. 朴氏의 佳緣과 變身의 意味 | V. 결 론             |

## I. 서 론

박씨전은, 작품의 배경이 병자호란이고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결구되었다는 점에서, 역사·군담·여결소설 등으로 하위 분류되고 있다. 한편 異本들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sup>1)</sup> 향유층도 두터운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박씨전에 관한 연구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考究되어 왔고, 따라서 본 작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 부각 해명되고 있다.

그러나 本傳이 「朴氏」라는 영웅적 여성을 통하여 國亂을 타개한다는 극히 일반적인 의미 이전에, 출생때부터 호군퇴치까지를 통한 주동 인물인 朴氏의 일생을 보면 神異한 傳奇的 요소로 둘러싸여 있는 극히 신비한 존재로 조명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朴氏는 현실에서 유추된 허구적 인물이 되기보다는 현실과 유리된 상상속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소설이 다른 문학장르처럼 작가의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상상력 그 자체만이 아니고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바탕에 깔고 이

\* 釜山大 人文大 講師

- 1) 朴氏傳의 異本으로는 목판본으로는 발간된 바 없고 필사본과 활자본만 전하여지고 있는데 무려 30여종이나 된다(史在東: 朴氏傳의 形成過程, 藏菴 池憲英先生 古稀紀念論叢 1980 참조)

루어진 시대적 사회적 소산이며, 동시에 그러한 의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작중인물들도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나 박씨전을 보면, 작품속에 투영된 사회적 상황을 포함한 여러 현상들은 實史的 요소를 나타내면서도 작중 주인공인 朴氏만큼은 지극히 想像的인 소산이다.

따라서, 국란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 朴氏의 행위와 그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작품의 순차적 구조에 따라 고찰하여 봄으로써, 朴氏라는 현실과 유리된 상상적 인물의 설정의의는 물론 작품의 구조적 의미까지도 어느 정도 해명되리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박씨전의 구조적 골격을 제시하면,

- ① 금강산 道士의 딸로 출생
- ② 李時白과의 結緣과 變身
- ③ 胡軍退治

로 되어 있는데, 그러던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앞에서 제시된 중심과제를 고찰하여 보겠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異本이 다양하여 연구의 Text 선정이 문제가 되나 본 연구의 과제가 작품의 형성문제가 아니며, 또한 선정된 Text가 후대적 異本이라고 해도 그것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漢城書館本 朴氏傳」을 대본으로 삼았다.

## II. 朴氏의 身分과 時代的 意味

### II-1. 朴氏의 出生 신분

朴氏는 여타 군담소설의 주인공들 못지 않게 구국활동을 한 영웅이다. 그러나 군담소설의 주인공들의 탄생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의 神

異性이나 英雄性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마련인 胎夢모티브나 天上人物의 下降모티브 등을 박씨전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그의 영웅적 능력을 암시하기 위한 복선 같은 것도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그는 금강산에 은거하는 朴道士의 장녀로 태어나 용모는 박색하나 천성이 현숙하고 道學이 無量하여 세상만물을 모르는 것이 없다는 정도뿐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國亂을 타개하는 구국의 영웅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결국 박씨는 그 출생과정이 고대소설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영웅적인 인물 탄생의 定型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작품의 內的 의미파악에 유관된 요소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박씨전의 주제적 의미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여성의 활동상을 통해 胡賊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의 표현, 그리고 참정권이 없는 조선시대 여성들도 봉건적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國亂을 타개할 수 있다는 능력과 智略의 과시라고<sup>2)</sup> 보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또 다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朴氏가 탄생과정에서 영웅적 인물 탄생의 정형성에서 벗어나면서도 그가 구국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출생신분과 유관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朴氏의 출생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되겠는데, 먼저 그의 부친의 인물 됨과 李時白과의 혼사 과정을 통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朴氏의 부친은 금강산 상상두에 살면서 속세와는 인연을 끊었고,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도 뒤에 朴氏의 남편이 된 李時白과 그의 분친뿐인 신비적 인물로 조형되어 있는 仙人이다. 名山이 선인들의 거처로 설정된 경우는 고대서사문학상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sup>3)</sup> 그도 금강산에 거처하면서 超世의 경지에 이르러 현세의 紛華에 유혹되지 않고 慾海에도 빠지

2) 金起東：韓國古典小說研究(敎學研究社, 1983, p.269). 朴氏傳의 主題에 관한 언급은 여러 논문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같기 때문에 金起東님의 견해를 대표적으로 인용했다.

3) 山岳界는 現實界와 다른 異界로 天上界 水中界와 더불어 하나의 仙界로 설정되었다(曹喜雄：韓國敘事文學의 空間概念, 古典文學研究 국어국문학회편 정음사, 1978, p.24).

지 않으면서 천상계와 수증계를 자유로이 왕래하는 異人이다.

그런데, 仙人 또는 神仙은 원래, 釋名에 「老而不死曰仙 仙僊也 僊入山也 故其制字 人傍作山也」라 한 것으로 보아 不老長生하려고 산에 들어가 수행하는 자를 두고 말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련을 통하여 신선이 되면, 행동의 제약이 없고, 또한 육신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神처럼 자유자재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선이 도사와 혼용되어 우리나라의 고대소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朴氏의 부친의 경우도 神仙·處士·道士·仙人 등으로 작품상에 범칭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 같이 현세를 초월한 존재로 神異之術을 행하는 인물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朴氏의 부친은 고대소설상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道士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본다.

한편 「道士」는 두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도교를 崇信하는 사람 즉 도교의 教徒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도술과 방술을 부리는 인물이 그것이다.<sup>4)</sup>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도사는 도교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도술과 방술로서 神術을 자유로이 행하는 인물을 의미하며, 朴氏의 부친도 이런 의미의 도사다. 따라서 그는 산중에 은거하면서 무궁한 조화력을 발휘하여 인간사를 자유로이 움직이는 인물임을 알 수 있고, 동시에 그렇게 행동한 인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도사는 사대부층의 의식과는 거리가 먼 민중들의 의식에서 창출된 인물이란 것이다.

道士는 道仙思想에서<sup>5)</sup> 창출된 亂世의 소산이다. 즉 중국 전국시대

4) 道術은 道에 들어가 처신하는 法術을 말함이고, 方術은 方士라는 자들이 행하는 것으로 전자를 道士라 하고 후자를 方士라 하였으나, 周紹賢 「道家與神仙, 五, 道士條」에 「養生却老 爲方士之學問 故方士卽道士 道士之稱遂代替方士之名」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동일인물로 취급된 것 같다.

5) 여기서 말하는 道仙思想이란 道家, 道教, 神仙들의 사상을 합친 개념이다. 三者가 출발당시부터 달랐고 별개의 사상으로 정립되었으나, 이 세상의 일상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상통하다. 곧 道仙思想이라고 할 때는 道家와 神仙의 뜻을 아울러 지닌 概念語라 하겠는데 道家의 形而上學의 정신을 體로 삼고 神仙의 保命養生術을 用으로 하여 붙인 이름이다. (崔三龍: 韓國初期小說의 道仙思想研究 형설출판사, 1982, p. 18참조).

에 정치적 혼란과 위정자들의 폭정에 의하여 정신적 갈등을 일으킨 일부 나약한 지식인들이 허구적으로 창조한 인물이 신선 또는 도사이었으며, 이러한 신선의 이야기가 葛洪의 抱朴子와 神仙傳에 의해서 구체화 및 체계화되었으나 超世의이고 非現實적인 要素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선 도사에 관한 이야기가 민간에 유전되면서 잡다한 설화들이 탄생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流入되어 유포됨으로써 소설속에 수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도사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不可思議한 異蹟을 자유자재로 행하면서 惑世巫民한다는 이야기들이 민간에 유포되었던 현실이고 보면, 비록 그것이 개인의 私利에 의한 幻術이 아니고 국가적인 삶의 문제, 즉 대의 명분이 뚜렷한 글자 그대로 道術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사대부들의 사고와는 일치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도사는 佛僧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의 도교는 정상적인 종교로 발하지 못했고, 또한 도사라는 인물이 지닌 초월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설화상으로 유전되면서 민간의식에서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해결점이 바로 山寺에 살면서 속세와 격리된 불승에로 복합된 결과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아진다.<sup>6)</sup> 물론 소설작가들이 불승과 도사에 대한 엄격한 개념구분을 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根因은 道·佛을 통합한 사고에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조선조의 사상체계와 지배윤리가 철저한 유교윤리 일변도로 나아갔던 사회실상과 결부하여 생각해 볼 때, 허탄한 사상이라고 배척되었던 道仙思想에서 창출된 道士나 佛僧의 성격을 면 도사나 모두 배척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도사의 사회적 위치를 감안할 때, 朴氏의 부친은 양반계층이 될 수 없고, 동시에 朴氏의 출생신분도 양반층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朴氏의 출생신분이 上層民이 아니라는 점은 李時白과의 결연과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6) 金鉉龍: 國文學과 神仙(경민당, 1978, p. 74).

비록 朴氏가 금강산에 온거하는 도사의 딸이기는 하지만, 그의 혈통이 명확하거나 조선조의 신분사회에서 도사의 위치가 양반사대부층과 동격으로 인정되었다면, 朴氏와 李時白과의 婚事는 정상적으로 행하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의 혼인은 당시의 혼례 절차를 감안하여 본다면 破格的이다.

처지공경스레왈상공이포장하시니비인의심히평감하하나다만호소스회잇소오니다  
 른일이아니오라비인의게호날녀식이잇소오나연귀미구에이르나어전가장물구치못하  
 였서니……중략……이에혼연디왈선성의고명호신지휘와영녀의순세호신괴질로용부  
 속자의비필을습고자하시니이논복의엇지못혼영화라잇지사양호리잇고원컨디존영을  
 맞돌나이다.<sup>7)</sup>

婚約 당시 李時白의 부친의 직함은 강원도 감찰사이다. 비록 그가 先見之明은 있다 하나, 관찰사의 신분에는 高官이 生面不知인, 그것도 걸인차림으로 찾아온 사람의 求婚에 앞뒤 사정도 고려하지 않은 채 즉석에서 응락한다는 것은 常道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종의 特例다.

물론 혼인 당사자의 인물됨이나 兩家家長이 親面이 있는 경우는 言約만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媒人이 드는 것이 사대부가문혼사의 상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조 사회가 남성중심의 家父長的 제도라고 하지만 혼사 문제만은 母親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마련인데, 李時白의 모친은 전혀 無知의 상태에서 며느리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婚禮式에 따른 절차도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결혼에 필요한 사전 절차도 없이 혼약 때 택일한 날이 오니, 父子만 금강산으로 찾아가서 양가의 가장만 지켜 보는 가운데에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다. 그리고 일단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이 먼저 오고, 그 다음 택일하여 신부가 下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 데 반하여, 박씨의 경우는 결혼 다음날 신랑과 같이 媿家에 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혼사과정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감안할 때, 양반가문

7) 民族文化社 影印 古典小說, 7, p. 6.

끼리의 혼사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신부측의 신분이 신랑의 가문과 대등적인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었고, 따라서 비밀리에 약식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선조 사회에서의 도사의 위치, 그리고 李時白과의 혼사과정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절차 등을 두고 볼 때 朴氏의 출생신분은 양반층의 의식과는 거리가 먼 민중들의 의식에 유착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사대부층으로부터 賤視되었던 身分의 인물이 사대부 가문의 며느리가 되고, 뒤에 가서 救國의 영웅이 된 內在的 의미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 II-2. 인물설정의 시대적 의미

朴氏傳의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으나, 그것이 胡亂직후에 형성되었던 훨씬 후대에 형성되었던 간에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丙亂은 壬亂과 더불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고 거기에 따른 일반 서민들의 고통은 그 극에 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참상이 빨리 수습되고 치유되어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정상적인 삶을 누렸다면 낙천적인 우리 선인들의 성격으로 보아 쉽게 잊혀졌을 것이고, 동시에 비록 허구적이라고 할지라도 朴氏와 같은 인물의 등장이 별다른 시대적 사회적 의미를 띠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壬·丙 兩亂을 기점으로 한 조선후기 사회의 실상이 그렇지 못한 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새 王朝의 통치원리가 된 성리학은 초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문제에 직결되고 상당한 실천성을 유지함으로써 중세적 재정비 강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6C를 고비로 하여 성리학은 지배체제 자체의 모순성 노정의 결과로 硬化되었고 반역사적인 정치·경제·사회체제를 억지로 유지하는

이론의 뒷받침밖에 되지 못하여 당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8)</sup>

이런 지배윤리의 피폐 속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 7년간의 긴 전쟁의 風塵을 겪게 되니 전체사회는 정치·경제적으로 多大한 피해를 입게되었고 거기에다가 30년이 못 되어 병자호란을 맞게 되었다.

胡軍의 來侵으로 인하여 전 국토는 살육과 방화, 강탈로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國王이 山城으로 피난하여 온갖 곤욕을 당하였는가 하면, 王族을 비롯한 사대부의 권속들이 겪었던 수도와 치욕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었다고 하니,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간다. 거기에다가 강화의 조건으로 붙어야 했던 물질적 배상 때문에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경제적 압박은 전란이 끝난 후에도 오래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국난을 타개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욕보다는 자신의 권력유지에 급급하게 되자, 당쟁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되었고, 양반층 내부의 대립과 분열이 심화되면서 정권이 일부 양반에 의해서 壟斷되었다. 또한 거듭되는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流亡·求乞·病死 등 참혹한 경지에 이르게 되니, 집권사대부층에 대한 백성들의 怨讟은 갈수록 深造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여러 현상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존재를 재인식하게 됨과 동시에, 종래의 양반들에 대한 맹종의 자세를 버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보려는 의지와 더불어, 집권층에 대한 저항의식이 발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질곡에 대한 도전이든 불행한 자기 운명의 타개든, 저항 자체가 신분적 제약을 받고 사는 서민들의 현실적, 정상적인 행위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念願의 대상이 된 것이 超人的 人物이다. 즉 그들은 그들의 욕구실현을 위해 조화무궁한 神異術을 지닌 異人的 등장울 꿈꾼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원래 초인간적인 인물의 등장과 그가 부리는 도술은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示顯되었던 부정적인 의미로 시현되었던 亂世의 소산이다. 난세에서 고통받고 있는 층은 언제나 일반 서민들이었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인물의 등장을 갈망하기 마련

8) 姜萬吉, 16C 變化(韓國社會思想論文選 學文堂, 1983, p.329).

이다.

여기에 부응한 인물이 朴氏다.

朴氏는 지배윤리와 保身의 수단으로 전락되고만 유교사상에 심취된 양반계층에게는 천시되고 常民視된 인물이지만, 고통받는 민중들에게는 구원의 化身처럼 생각되었던 道士의 딸이다. 동시에 도사의 혈통을 이은 그는 각종 異術을 지닌 존재이고, 따라서 민중의 의식을 구현하여 줄 수 있는 영웅적 인물로 부각된 것이다.

### Ⅲ. 朴氏의 佳緣과 變身의 意味

고대서사문학에 등장하는 영웅은 귀족적 영웅과 민중적 영웅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귀족적 영웅은 현직고관의 경우가 아니면 失勢한 명문 거족의 후예다. 그리고 그들은 국난타개라는 외적인 목적과 가문의 명예 회복이나 개인적인 영달의 목적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영웅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민중적 영웅은 미천한 혈통에서 태어나 신분적 제약 때문에 그의 영웅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배하기 마련이다.<sup>9)</sup>

그러면 朴氏의 경우는 어떠한가? 앞서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출생신분이 사대부층의 의식과 對蹠인 常民視되었던 도사의 딸이라는 점, 민중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설정된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다음에 언급 되겠지만 자신이 태어난 가문의 명예회복이나 개인 영달이 그의 영웅성 발휘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朴氏는 민중적 영웅이다.

그러면 朴氏는 민중적 영웅이면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고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국난을 타개하는 구국의 영웅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그의 신분이 格上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민중적 영웅에서 귀족적 영웅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의미다.<sup>10)</sup>

9) 趙東一：韓國說話와 民衆意識(경음사, 1985, p. 147).

10) 民衆의 英雄에서 貴族의 英雄으로 身分이 格上되었다는 것은 단지 身分上的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朴氏가 지니고 있는 의식의 변화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점은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朴氏의 身分이 格上된 계기는 그의 佳緣과 變身에 있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常民視되었던 도사의 딸이 사대부 가문의 자제인 李 時白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양반사회의 편입을 의미한 것이다.

下層에서 上層이란 수직적 신분변화는 철저한 신분계급 사회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나, 朴氏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 개연성이 인정되리라고 생각된다. 즉 남성인 경우 비록 소설이라는 허구를 통한다고 할지라도 수직적 신분격상은 그 타당성이 극히 희박하다. 그러나 여성인 경우에는 신분의 위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만 목인한다면, 그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朴氏의 출생 신분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 있는 상태에서 李 時白의 부친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아들의 혼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그것도 주위의 일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졌으며, 朴氏가 시집은 이후, 남편을 비롯한 시가식구들의 학대를 받을 때에도 朴氏의 비호에 적극성을 잃지 않았다.

결국 朴氏는 家長의 묵인과 비호 아래 李 時白과 결혼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양반사회에 편입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그가 양반사회에 편입은 되었으나, 그것으로서 완전한 사대부 부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시집오자마자 그는 3년간이나 遊禍堂에 격리된 채 은거생활을 하였고, 그동안 남편과 한 번도 靈雨之樂을 누리지 못하였는가 하면, 媿父이외의 媿家식구와는 相從은 물론 대면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朴氏의 身分格上을 그의 媿父는 인정하나, 나머지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그는 名實相符한 사대부가문의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은 격리생활과 변신이다.

흔히 신화속의 영웅이 겪는 격리의 의미를 入社式의 기능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격리는 죽음과 재생을 상징하는 제의적 의미로 개인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재생시키는 데에 따르는 한 과정이며, 그 소속사회를 재생시켜야 하는 淨化者로서의 운명이 실현되기 전에 겪는 통과제의의 한 절차로 의미파악을 하고 있다.<sup>11)</sup> 朴氏의 경우도 격리과정과 변신을 통해서 완전한 사대부의 부인으로서 위치를 확보하였고, 또한 救國英雄으로 활약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避禍堂 생활이 입사식 절차의 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看過할 수 없는 것은 격리과정에서 그가 행한 異蹟의 의미다. 즉 가족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격리된 3년의 피화당 생활을 지내는 동안, 知人之鑑과 神異之術을 행하여, 비루먹은 말을 사서 高價에 판다든지 白玉仙硯을 남편에게 주어 장원급제하게 한다든지 하는 異蹟이 갖는 의미문제다.

여기서 이런 神術이 갖는 의미는, 새로운 신분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기구제에 목적을 둔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비범성을 가족에게 알림에도 있었지만<sup>12)</sup>, 더욱 중요한 것은 위의 병자호란과 관련지어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朴氏는 자신의 장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까지도 豫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격리생활 자체는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일 뿐 시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사대부 가문의 일원으로서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구제를 위한 異蹟의 示顯같은 것을 필요하지 않았다.

결국 격리과정에서의 神術의 시현을 胡亂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養馬術은 親明排淸사상과 결부된다.

병자호란 자체가, 明과 淸의 대결외중에 있을 때에 明나라와 內通하면서

11) 金烈圭, 朱鉦 民談과 文學에 있어서 入社式談(金烈圭外 3人: 民談學概說 일조각, 1982, p. 285참조)

12) 朴氏의 異蹟은 본 媿父는 그를 가리며 남자로 태어 났다면, 국가의 棟樑이 될 인물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淸나라를 적대시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朴氏傳의 창작동인이 배청의 식에 있으며 朴氏는 철저한 배청주의자다. 媿父가 말값이 비싼 이유를 묻자,

그대리천리준총이라조선은쇼국인고로오라보리업거니와단국은지방이광활하고미구의쓸데잇는고로척소는신명훈사름인고로오라보고삼만여금중가들앗기지오나코스갓스오니...<sup>13)</sup>

라고 하여 우리나라로서는 필요가 없고 明나라에서 꼭 필요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末久에 쓸 데가 있다는 것은 明나라를 두고 말함이다. 결국 養馬는 治産이나 朴氏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明나라를 도우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仙硯에 의한 남편의 장원급제는 胡亂을 대비한 배개인물의 설정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 언급이 있겠지만, 李時白은 철저한 무능력자로 되어 있다.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처리한 적이 없고 모든 것을 朴氏의 조종에 의해서 그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朴氏는 남편을 배개자로 하여 자기생각을 임금에게 알려 정책을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國事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朴氏로서는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여 줄 인물이 필요하였고, 그가 바로 李時白이다. 즉 남편을 장원급제시켜 國王과 相從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朴氏는 정책 입안자요, 남편은 전달자이며, 國王은 결정 처리자가 된 셈이다.<sup>14)</sup>

한편, 이 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朴氏는 佳緣후 양반사회에 편입을 되었으나 신분 격상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3년간의 격리생활을 하고난 다음, 허물을 벗고 美人으로 변신한다.

變身은 일종의 不可信의 극단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동일인임을 증명하

13) 앞책, p. 19.

14)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장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것이다.

기 위하여 허물을 媿父가 만들어 준 옥함에 보관하여 자신의 신이적 현상을 가족들은 물론 國王에까지 公認받게 된다. 추물로 인하여 일어났던 고통과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리고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의 총애를 받는가 하면, 그때야 비로소 외부인들과도 相從할 수 있었다.

결국 朴氏의 미인변신은 유교지배체제 밑에서 常民視되었던 道士의 딸이 名實相符한 사대부 가문의 여인으로, 민중적 영웅이 귀족적 영웅으로서의 신분격상을 확고하게 만든 극단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변신은 경험적 사고에 보면 不可思議한 神異的 현상이다. 때문에 변신의 주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생을 통하여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며 상대자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기적의 연출과도 같은 변신을 신화시대부터 보편화되었다.

현실과 이상을 하나로 통합하고 초자연적인 노력으로 자연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이 신화의 기능이라면<sup>15)</sup>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수단으로서 갖가지 신이로운 행위들이 신화속에 등장하기 마련이고 이것을 통하여 신화속의 인물들은 소원한 바를 성취하곤 하였다. 여기에 한 몫을 차지한 것이 변신 모티프였고, 그것은 하나의 문학적 원형이 되어 후대의 문학양식인 소설에 수용된 것이다.

朴氏의 경우도 변신을 통하여 일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美人으로의 변신을 통하여 확고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변신을 통하여 신분의 격상이 확고하게 되자 병자호란이 일어났으며, 동시에 그는 국난극복이라는 同時代人이 지닌 공동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영웅으로 돌변하면서 국왕의 운명은 물론, 나라의 운명까지 스스로 짊어졌다.

15) 리차드 체이스: 文學으로서의 神話(金鎭國外3人역: 文學과 神話, 대담사, 1981, p.122).

## IV. 胡軍退治過程에서의 人物들의 행위와 그 意味

우선 호군퇴치과정상의 사건을 순차적으로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李 時白과 林 慶業을 죽일 목적으로 胡國公主가 雪中梅라는 기생으로 가 장하여 조선에 오나 朴氏에 의해서 퇴치된다.
- (나) 胡軍의 來侵을 豫知한 朴氏는 國王을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한다.
- (다) 國王으로 하여금 降書를 올려 蒼生을 구하도록 한다.
- (라) 胡將인 龍忽大는 죽이고, 龍骨大에게는 갖가지 수모를 주에 回軍하게 함으로써 전란은 평정된다.

이상은 朴氏傳의 호군퇴치과정부분의 사건 개요인데, 인물들의 행위와 성격을 보면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즉 國亂수습의 주체자로서 朴氏와 桂花, 그리고 국난수습의 책임자이자 당사자이면서 수습은 커녕 목숨 부지에도 급급한 국왕을 비롯한 사대부 관료층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틀 전개해 보겠다.

첫째, 賤婢인 桂花의 등장과 朴氏와의 관계 및 그들의 행위가 갖는 의미다.

桂花는 朴氏의 侍婢다. 그는 賤民인 계집종으로 朴氏로부터 도술을 배웠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말하자면 朴氏의 分身이다. 따라서 胡軍退治는 朴氏의 智略과 桂花의 도술적 행위에 의하여 이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朴氏가 그의 행동의 대행자로 桂花를 내세웠느냐 하는 점이다. 즉 朴氏가 侍婢에게 도술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면, 그의 남편인 李 時白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남편을 구국의 영웅으로 부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李 時白의 경우를 보면, 戰功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아내가 없었다면 胡國公主에게 무참히 살해되었을 몸이다.

이것은 작품속에 투영된 작가의식의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아진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朴氏는 常民視되었던 道士의 딸로 민중속의 인물이다. 비록 그가 사대부 가문의 며느리가 되고 변신이라는 異蹟을 통하여 귀족으로 신분이 격상되었으나, 이것은 신분상의 僞裝일 뿐, 의식의 바탕은 민중적이다. 따라서 李時白이 비록 그의 남편이라고는 하지만 민중이 바라는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桂花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賤民으로 민중편의 인물이다. 때문에 朴氏는 그에게 도술을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의 행동을 代行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朴氏傳은 道術小說이라고 불릴 정도로 도술이 다량으로 수용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胡亂平靜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허구 속에 도술이 수용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즉 등장인물의 美化수단과 사회적 여러 현상에 대한 불만 해소가 그것이다. 물론 朴氏傳에서의 도술의 의미는 후자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런 도술에 대한 관념은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일부의 몰락한 양반계층에도 있었으나, 주로 민중들의 의식속에 잠재되어 있었고, 민중에 의해서 그 가능성이 인식되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李時白은 도술적 인물이 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반면에, 桂花는 도술의 술법에 대해서 잠재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되며, 이런 점 또한 桂花라는 인물의 등장 의미 중의 하나로 보아진다.

다음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권층 인물들의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胡亂平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통치권자인 國王과 그의 幕僚들이 朴氏와 桂花의 손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결구하여 놓은 작품의 內在的 의미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집권층의 인물로 작품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國王, 李時白, 林慶業, 그리고 領議政, 左議政 등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朴氏와 桂花의 지시에 비굴할 정도로 복종한다.

왕의 경우, 山城으로 勳駕하도록 桂花가 上奏했을 때나 胡軍에게 降書를 올리고 화친하도록 進言했을 때에, 그는 진후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순종한다. 그리고 영의정 金自點, 우의정 白雲學 등은 임금의 山城勳駕를

반대하다가 桂花의 一喝에 無類히 굴복하는가 하면, 名將으로 이름을 떨친 林慶業은 朴氏의 편지 한 장에 그의 의지를 굽혔고, 호란 당시 일급 참모인 李時白은 아내의 손에 돌아나는 꼴이 되었다.

이것은 병판과정에서 靈무된 집권층의 무능을 폭로하고 그들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의식을 우회적으로 露現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朴氏傳은 胡賊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을 나타내면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여성능력의 위대성을 과시하려는 데에 그 창작동기가 있었고, 이것이 박씨전의 주제적 의미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일반화된 견해들이다.

그러나 朴氏와 桂花의 인물이 지닌 성격이나 의미가 단순히 여성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민중들의 의식의 대변자요 구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호란에 대한 적개심, 여성우위의 사상 등으로 云謂되는 것은 皮相의인 견해라고 보아진다.

작품의 스토리를 두고 볼 때에,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된다. 그러나 집권층의 인물이 제3의 인물에 의하여 主見없이 움직였다는 것은 철저한 과장에서 나온 허구다. 이것은 작가의 의도적 소산이며, 작가의식이 반영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丙亂과 그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집권층의 무능과 反社會的 작태는 민중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앞에서 강조된 바 있다. 따라서, 국왕을 비롯한 집권사대부층의 인물들을 無能한 존재로 허구화하여 놓은 것은 胡賊의 來侵으로 인한 민족적 울분을 민족적 영웅인 朴氏와 桂花를 통하여 雪償하면서, 그 裏面에는 그들의 무능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집권층에 대한 저항의식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작품이 朴氏傳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V. 결 론

朴氏傳의 主題的 意味가 胡賊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그리고 참정권이 없는 여성도 國亂을 타개할 수 있다는 여성능력의 과시라는 일반론적

인 견해보다도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등장인물의 성격과 행위를 중심으로하여 고찰해 본 것이 本考다. 그 결과,

첫째, 朴氏는 李時白과의 佳緣에 의하여 사대부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으나, 그의 출생신분은 양반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근거를 朴氏의 부친은 당시의 사대부층으로부터 허탄한 존재라고 배척되고 常民視되었던 道士라는 점과, 李時白과의 혼인이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행하여졌다는 데에서 찾아보았다.

둘째, 따라서 朴氏는 민중의식에서 구현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丙亂과 그 수습과정에서 靈現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러 피해현상들은 서민들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 주었고, 그로 인한 서민들의 울분은 양반층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민중들의 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정된 인물이 朴氏라고 보아진다.

셋째, 李時白과의 結緣과 美人으로의 변신은 朴氏의 身分格上의 계기가 되었다. 결국 朴氏는 李時白의 아내가 되므로써 양반계층에 편입할 수 있었고 3년간의 격리과정과 變身이라는 異蹟을 통하여 귀족적 영웅이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네째, 그러나 朴氏의 身分格上의 의미가 양반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개인적 욕구충족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國政參與權이 있는 계층의 편입을 통하여 민중들의 의식을 具現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朴氏의 身分格上은 그가 지닌 의식까지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아진다.

다섯째, 호군퇴치과정에서 朴氏가 그의 侍婢를 代行者로 내세운 것은, 桂花의 身分이 賤人으로 민중들의 의식에 부합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胡亂수습의 당사자이자 책임자들인 國王을 비롯한 집권층의 인물들이 무능한 존재로 朴氏와 賤婢의 손에서 움직이었다는 것은 호란으로 인한 민족적 울분을 민중적 인물인 朴氏와 桂花를 통해 雪憤하면서, 그裏面에는 그들의 무능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집권층에 대한 저항의식을 우회적으로 露現한 것으로, 이것은 바로 朴氏傳의 主題的 意味가 된다고 볼 수 있다.